

INSIDE  
○○ YTN

2018. Vol. 132

1

2

올바른 사회 희망찬 내일

# 올바른 사회 희망찬 내일



무진년 원단에  
장천 김성태 스승  



## IN

In Newsquare

2018 대표이사 사장 시무사 <New YTN One YTN> | 최남수 04

## Exclusive Now

휴당물 속에서 진주 찾기 | 신지현 08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 | 나현호 10

## 이 방송 궁금하다

빛과 얼음의 땅, 북극 | 유창림 12  
전일본 한국어 스피치 본선대회 (제 이름은 신춘상입니다) | 정신선 14

## 시사안드로메다 50회 특집 공개방송

흑한을 우주로 날려버린 '시안'의 첫 공개방송 이야기 | 홍상희 16

## 글로벌 센터 신년 연속 기획

<재일동포 1세의 기록>에 관한 기록 | 김이향 18

2017 4분기 자랑스러운 YTN인 및 연말 대상 시상식 20

## SIDE

###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김억 목판화가

22 홍경한 | '환영'을 통한 또 다른 '환영', '실재' 이상의 '실재'

### 앵커의 변신 \_ 차현주 앵커

24 김여진 | 차현주

###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_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2번

26 유석현 | 몽환적인 동화의 세계를 엿보는 즐거움

### 최광희의 영화가 그린 세상

28 최광희 | 시대, 그리고 한국영화의 기회주의

### 김여진 앵커의 <Number & Talk> \_ 만화가 이현세

30 김여진 | 영원한 까치 이현세

### YTN 이모저모

34 YTN 이모저모



표지 김억 작 | 화림동 거연정, 64.5 x 44cm, 판화지에 목판, 2014

작가 김억의 목판화 또한 판종과 주제 간 호흡이 썩 조화롭다. 목판화 특유의 텁텁함과 세밀함이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토의 산하를 부감법으로 한지에 담아내는 그의 풍경 목판화의 경우 특유의 정서가 물씬하다는 점이다. 그 정서에는 한 민족이나 개인이 조상대대 전통적으로 이어온 생활 습속(習俗)에 따라 함께 했던 문화가 녹아 있고, 현세에서의 솔직하고 소박한 심정이 깃들여 있다. 그의 판화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역할, 상기해야 할 현재와 미래의 역사, 기억해야 할 오늘의 삶이 오롯 새겨져 있다. 이처럼 자연과 역사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꼬트머리에 자리한 나와 우리의 '삶'은 김억의 판화가 살가워지는 명백한 이유다. 유구한 세월동안을 자기 정체성과 예술적 좌표를 그리기위해 수없이 던진 질문 또한 그의 그림에 가치를 더하는 원인이다.

[2018 YTN 대표이사 신년사]

# New YTN~ One YTN

임직원 여러분,

지난달 28일 취임을 하고 닷새 만에 여러분과 함께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말 취임사에서 YTN의 새 좌표로 'New YTN, One YTN'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제 3의 창사'를 한다는 각오를 다지자고 제안했습니다.



1995년의 '제 1의 창사'는 말 그대로 개국과 이후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절벽'을 극복한 '제2의 창사'는 무너진 기반을 다시 쌓아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리가 완수해야 할 '제 3의 창사'는 공정방송, 콘텐츠, 경영체력, 디지털 역량, 내부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선두권 혁신 미디어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의 차별성을 강화해 뉴스의 중심과 표준이 되는 뉴스 혁신의 리더! 개국 30년을 내다보는 YTN의 새 지향점이었으면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18년 한 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은다면 혁신의 동력이 강력하게 점화돼 YTN의 힘찬 재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북핵 위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평창 동계 올림픽(2월), 지방선거(6월) 등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뉴스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환경도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5G 도입으로 정보처리 속도가 빨라져 모바일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확장으로 뉴스의 제작과 유통, 소비 패턴에도 본질적 변화가 본격화할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이라는 전통적인 미디어 장벽이 무너지고 경계를 넘나드는 크로스미디어 제작도 더 활성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 아래 발 빠른 대응 능력이 생존과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YTN의 순항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콘텐츠력'이라고 믿습니다. YTN의 본원적 힘인 속보역량을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탐사저널리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디지털을 기회로 여기고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뿌리내리게 해 언론과 기술에 능한 '기술저널리즘'의 영역도 개척해야 합니다.

콘텐츠 혁신은 인식의 변화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미국 뉴미디어 선두주자 중의 하나인 쿼츠의 한 간부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전통 언론사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경직되고 '스토리는 이렇게 해야지, 기사는 이렇게 써야지, 이게 출입처라는 것이고 이게 내 관심분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관심분야 외의 분야를 탐험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며 출입처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야 하고 호기심이 많아야 한다"

『루시 킹 저, 디지털 뉴스의 혁신』

여기에서 우리는 자문해봐야 합니다.

YTN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끊임없이 혁신하는 조직인가?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고 있는가?

문화의 혁신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내 정치나 인맥보다는 능력과 실력, 성과로 보상받고, 뒤에서 무성한 얘기보다 면전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활기를 띠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안에서 다투기엔 바깥쪽의 경쟁과 변화 상황이 너무 위중합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올 한해 콘텐츠 혁신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과거 극복, 공정방송 정착, 경영혁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를 이미 설치한 데 이어 활동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의 노사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 보도국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수순도 밟아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YTN 노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도'에 따른 신임 보도국장의 임명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인미답의 길'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보도국장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보도국 정상화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임명 절차에 다시 착수하겠습니다. 신임 보도국장은 '편견'으로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그 실천 과정에서 기계적 균형에 매몰되지 않고 약자 편에 서는 이른바 '정의로운 공정성'을 견지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 개편과 혁신인사도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포착하고 매출 능력을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자회사 및 계열 채널의 경영 효율을 제고하고 본사-계열사 간, 채널 간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안들은 New YTN, One YTN을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적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계획들을 상식과 합리, 원칙의 바탕 위에서 질서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회의  
아픔과 함께 하는 YTN,

미래지향적 대안을 선도  
적으로 제시하는 YTN,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  
가 되는 YTN을 함께 만  
들어 가십시오.

한 데 뭉친 만큼 부쩍 자란 YTN을 연말에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취임 첫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YTN 대표이사 사장 최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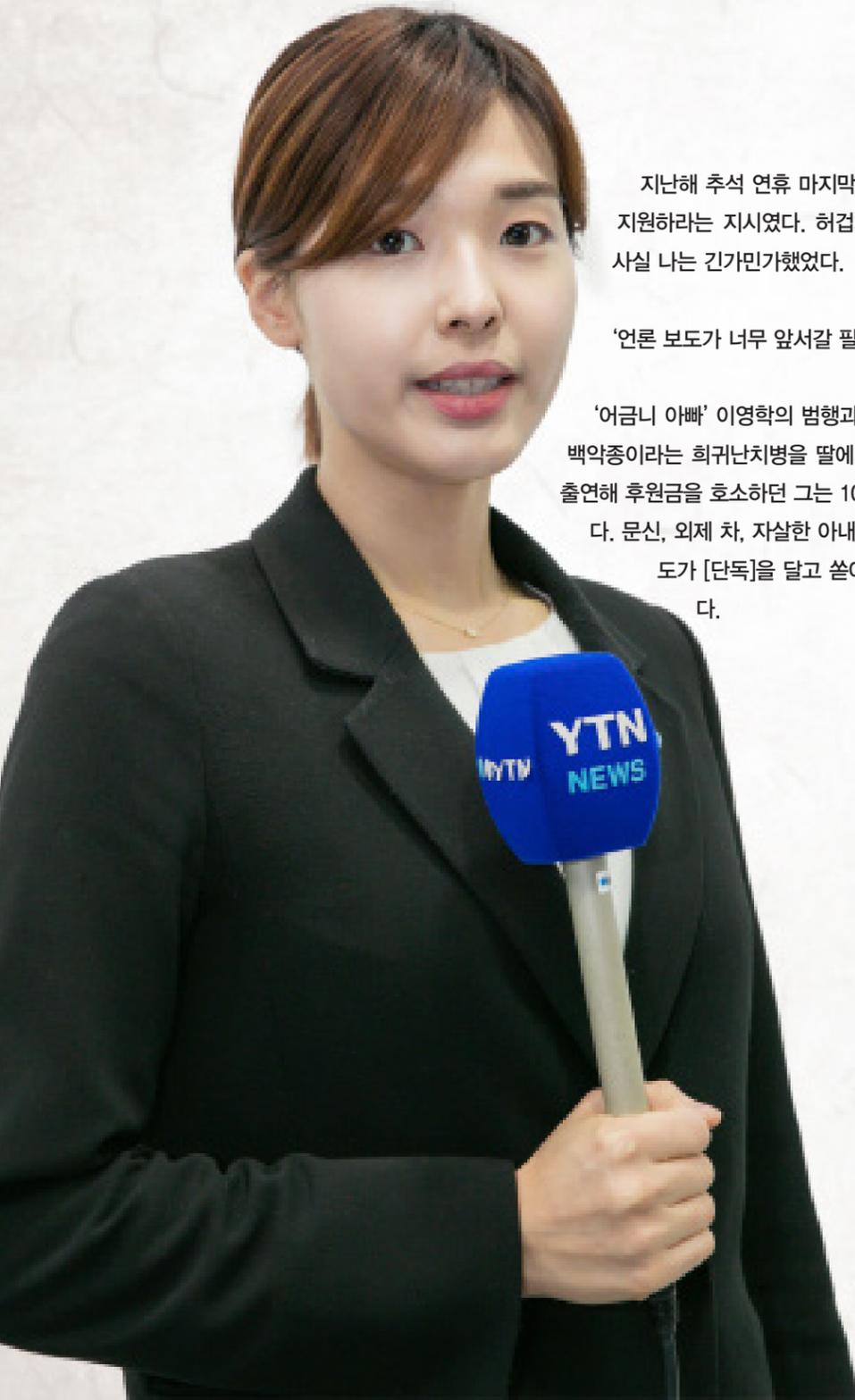
# 휴탕물 속에서 진주 찾기

신지원 기자 | 보도국 사회부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캡의 전화를 받았다. '이영학 사건' 취재를 지원하라는 지시였다. 허겁지겁 점심을 먹고 현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사실 나는 긴가민가했었다.

'언론 보도가 너무 앞서갈 필요가 있을까?'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행과 사생활 흔적은 온갖 호기심을 자극했다.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난치병을 딸에게 물려준 가슴 아픈 아버지의 사연으로 TV에 출연해 후원금을 호소하던 그는 10여 년 만에 살인범으로 다시 대중 앞에 등장했다. 문신, 외제 차, 자살한 아내, 후원금 모집운동... 언론에서는 온갖 의혹 보도가 [단독]을 달고 쏟아졌다. 관련 키워드는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했다.



YTN 사건팀은 '진휴탕' 속에서 진주를 찾기 위해 힘을 모았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됐다. 캡과 데스크가 책임지고 중심을 잡아줬고, 사건팀 구성원들은 따로 또 같이 유기적인 취재를 이어갔다. 이런 분위기 덕에 '자극적인 보도와 가치있는 보도의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은 점점 줄어들고 취재에 전념할 수 있었다.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건팀 최기성 선배, 양시창 선배, 조은지 선배, 막내 이경국 기자 등 모두가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곳곳에서 취재를 벌이고 있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사실 마지막에 받을 담근 썸이다.

양시창 선배는 초반에 이영학이 딸과 함께 시신이 든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결정적인 단서이자, 이 씨의 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근거가 된 자료이다. 최기성 선배는 이영학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십여 년 동안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매달 160만 원씩 부당수급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파헤쳤다. 조은지 선배는 사건 전체를 꿰뚫으면서 취재의 디테일과 방향성을 잡아주었다. 이경국 기자는 현장을 낚날이 뒤져 이튿날 이영학의 딸을 만났던 친구를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 경찰도 모르고 있던 정황이었다.

경찰서에서 취재한 나는 계속 의문이 남았다.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처음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경찰은 피해학생이 이영학의 집을 방문한 첫날이 아닌 이튿날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발표를 수정했다. 유족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해 학생은 만나질 넘게 살아있었던 것이다. 앞서 이경국 기자가 이영학 딸의 친구를 통해 취재한 정황과도 맞아

떨어졌다. 기자들의 끈질긴 취재가 경찰 수사보다 정확할 수 있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언론담당을 맡은 형사과장을 건너뛰고 초동수사를 담당한 여청과장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 첫 번째 통화는 32분, 두 번째는 11분, 담당 팀장과도 10분 넘게 통화했다. 시간 단위로 경찰의 대응을 물어 촘촘하게 타임라인을 채워갔다. YTN 사건팀이 온갖 현장에서 취재한 정황을 들이대자 경찰도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던 시간, 경찰이 이영학의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갔고, 마지막 행적은 다음날 늦은 오후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서장이 사건보고를 받은 건 실종 나흘 뒤였다. 잔악한 범행 내용을 취재할 때보다 더 큰 분노를 느꼈다.

경찰의 초동대응을 꼬집은 YTN의 보도 이후 대대적인 감찰이 이뤄졌고, 서장부터 지구대 경찰관까지 담당 경찰관 9명이 인사 조치됐다. 경찰청은 실종수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당수급 문제와 불법모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영학 사건은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는지 입증했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담당 구청은 제2의 이영학을 막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처음에 내가 가진 질문의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보도를 전제로 취재하지 않고,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의혹 보도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함께 달을 올려주신 YTN 사건팀 선배들에게 감사드린다.



#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

나현호 기자 | 보도국 광주지부



“아들이 후배를 때렸는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어머니의 주장은 황당했다. 아무리 자식을 감싸고돌아도 이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 쯤,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에는 코뼈가 주저앉고 눈이 시퍼레진 아들이 있었다. 발가벗겨진 채로 상가를 배회하는 사진도 있었다.

처참한 사진들은 SNS를 타고 돌았다. 아무 이유 없이 친구들에게 30분 넘게 맞았고 돈도 수시로 뺏겼다.



잔인하게 아들을 괴롭힌 이들은 ‘친구’라고 어울렸던 동네 또래들이었다. 모텔 욕실에서 옷을 벗겨 찬물 고문을 하고, 피해자가 잠자는 동안 머리카락을 태워 제멋대로 잘라버렸다. 구타와 돈 뺏기는 기본. 괴롭힘 당하다가 기절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적용한 죄명은 13가지에 달했다. 후배를 때리지 않으면 자신이 동네 동갑내기들에게 보복을 당했던 것이다. 후배를 때리고도 피해자라고 했던 속내는 이랬다.

“학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피해 학생은 상담 교사와 학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라는 동갑내기들은 제멋대로 피해자의 집을 들락거렸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겨 버린 것이다. 가해자들과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절실했다. 그래서일까. 피해 학생은 학교를 ‘안식처’라고 했다.

무려 2년 간 이어진 잔인한 괴롭힘. 피해 학생은 자살증후군에 극심한 대인기피, 우울증, 심지어 지적장애까지 겪고 있었다. 그런데도 적발되지 않았다. 학교 밖, 정확히 말하면 ‘동네’에서 괴롭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어른들도 학교 내 폭력에만 집중했던 터라 알아채지 못했다. 학교 폭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그동안 보지 못했던 10대 폭력의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단독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수사가 시작됐지만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의 집을 계속 찾아왔다. 이를 막아달라고 부모가 경찰에 호소했지만, 경찰 역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사건을 첫 보도한 뒤 석 달간 피해 학생이 외출한 건 딱 네 차례뿐이었다. 이마저도 경찰 조사가 3번, 심리치료가 1번이

다. 외출하다가 비슷한 또래 목소리만 들려도 바로 차 뒤에 숨기까지 했다.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 때문이다. 학교 복귀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마침내 가족들은 동네를 떠나기로 했다. 부모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다.”며 이사를 했다. 서울에서 살다가 광주로 내려와 정착한 지 4년 만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 동네를 떠나는 건 피해 학생과 가족이었다.

그런데 “잘못했다,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 가해자는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구속돼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면회 온 여자 친구 앞에서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까지 올렸다. 구치소 생활을 자랑하고 근육을 키우고 있다는 말도 했다는 글도 인터넷에 올라왔다. 피해자와 가족은 또 한번 억장이 무너졌다.

성인과 맞먹는 잔혹한 범행에도 처벌은 너무나 약했다. 검찰은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가해 학생 4명을 소년부로 넘겼다. 처벌보다는 보호. 결국 다른 10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물론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10대 폭력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넉 달 동안 사건 발생부터 수사당국의 수사, 그리고 사법처리까지를 지켜보며 질문 하나를 던진다. “죄와 상관없이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줘야하는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사법부가 10대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 YTN 사이언스 자연 다큐멘터리 '빛과 얼음의 땅, 북극'



유창립 PD | 사이언스TV 콘텐츠제작팀

첫 촬영을 시작하며 혹한의 날씨 속 새하얀 설원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나의 삶에 가장 축복받은 순간은 지금이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며 모두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켜켜이 빙하가 쌓여있는 곳, 메말라가는 북극곰과, 이글루에 사는 이누이트족. 이 정도가 저희가 알고 있는 북극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북극은 무수히 많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북극의 자연과 사람, 그 곳에 숨 쉬는 모든 것들을 담기위한 1년의 제작여행, 각자의 아름다움이 담겨있었던 북극을 소개하려합니다.

## ◆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린란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 그린란드. 그린란드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을 까낙. 그곳에서 우리는 전통방식 그대로 고래사냥과 해표사냥을 하는 이누이트족을 취재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겨울철 얼어붙은 바다 위 개썰매를 타고 8시간을 달려 나가 해표사냥을 하는 사람들. 차가운 고통의 보상을 받듯 아름다운 절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냥. 취재진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속에 사냥이 이뤄졌습니다. 아직 수렵생활을 하는 까낙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냥이 살아가는 생존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린란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누이트족은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눈을 볼 수 없는 북극의 여름

사냥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규제와 환경변화에 따른 사냥감의 개체 수 감소 등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부에서는 이런 변화를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변하는 환경은 북극에 농사도 가능하게 만들었고, 빙하 속에 있던 자원들도 밖으로 나오게 해주었죠.

그린란드는 지금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극의 자연 속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제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는 영원한 눈꽃이 될 것 같습니다.

## ◆ 우리나라의 쇄빙선 <아라온>호

우리나라의 한여름이 지나고 있을 시기 8월. 북극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극지연구소 분들을 만났습니다. 극지의 환경에서 북극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를 대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극지연구의 과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출발하는 <아라온>호를 타고 21일간의 북극 항해를 따라가 봤습니다. 2m의 해빙을 뚫고 당당히 나아가는 아라온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 어디

에도 뒤쳐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과학 실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보호를 얘기 할 때 왜 항상 극지가 대두되는지 취재 전에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북극의 환경파괴로 인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극의 환경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해양, 대기 등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기온 현상과 이상기후현상 등 많은 자연재해들을 동반할 테고요.

북극은 지구의 냉장고입니다. 이상기온,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구의 평균기온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이 북극의 환경을 보존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지내려면 지금부터 의미를 가지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어미곰과 새끼곰

## ◆ 북극의 상징, 북극곰

한발 한발 내딛는 육중한 곰의 발걸음. 눈앞에 있는 북극곰은 취재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캐나다의 한 마을 처칠에서 우리는 북극곰을 만났습니다. 겨울철 해표 사냥을 하는 곰들은 이 시기에 가장 배고프고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긴장감을 안겨줬습니다.

11월 캐나다 북부는 매우 추웠습니다. 평균 영하 30도 이하의 체감온도 덕에 우리는 북극곰을 기다리는 긴 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특성 상



저와 카메라감독은 번갈아가며 몸을 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촬영을 허락한 북극곰. 어미 북극곰과 새끼곰들. 긴장한 수컷 북극곰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북극곰의 개체 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하는 북극의 환경과 줄어드는 먹이 탓에 사냥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극곰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경이롭고 웅장한 모습의 북극곰을 계속 보고 싶다면 환경보호에 관한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하게 되는 취재였습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일몰리셋 빙산지역

## ◆ 눈부시게 아름다운 북극

1년간의 북극 취재. 저와 카메라감독, 적은 인력으로 촬영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펼쳐진 북극의 아름다움을 보며 힘든 순간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북극의 느낌을, 감정을 100%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다큐멘터리가 의미 있게 전달되어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아름다운 북극'으로 남는다면 힘든 1년간의 여정도 모두 보상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북극을 그리고 미래의 북극을 얘기하는 좋은 다큐멘터리로 남았으면 합니다.



전일본 한국어스피치대회 본선 참가자와 심사위원, 특별공연팀

# “제 이름은 ‘신촌상’입니다”

정신선 작가 | 라이프국 콘텐츠제작팀

펠릭의 소설 동풍서풍에서 주인공 게이란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게이란의 오빠는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집안에서 얻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죠.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신촌상입니다>는 일본인들이 참가한 한국어스피치대회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스피치대회가 흔한 것이고, 일본사람이 한국말 좀 한다는데 무엇이 그리 대단할 것이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날아간 일본. 드러나지 않는 역사 속 한일 감정을 누그러뜨려 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바로 놀라운 한국 사랑이었습니다.

## ◆ 실력에 놀라다

입국한 날 오후, 숙소에 짐을 놓기가 무섭게 대회 추체 측인 재일본한국인연합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대회 전 참가자의 준비 과정을 사전취재 하고 싶다는 제작진의 요청에 응해 준 중년의 남성과 다소 어려 보이는 여성 참가자를 만났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더듬거리며 한국어 연습을 하는 모습과 실수를 연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담아,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예상했던 제작진. 이어진 촬영은 실수를 연발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26살의 마루야 요시

카는 한국어가 서툰 것이 아니라 제작진이 들이대는 카메라에 쭈스러워했고, 중년 남성 신무라 노부히사는 오히려 한국어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듯 말합니다.

숙소로 돌아 와 ‘한국어를 배운지 7년? 한국어 잘하시네~’ 하고 접어두었던 생각을 다시 펼쳐보니 세상에, 평생 배웠던 영어로 자기소개 한 번 하기 힘든 내 자신이 보였고 그 생각 위로 참가자들이 보였습니다.

## ◆ 진정한 외교

예선전이 끝날 때까지 참가자들을 인터뷰하다 보니 뛰어난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뎠습니다. 그런데 문

득 벌써 4회째를 맞고 있는 한국어스피치대회 개최배경이 궁금해졌습니다. 재일본한국인연합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미래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조금 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일본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섞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시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 중 그들은 문득문득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과거의 설움을 다음 세대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지금의 모습을 서로 알고 싶지 않게 만든 슬픈 과거 역사.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르는 한일관계. 그런 속에서도 일본에 한국을 알리고, 한국인의 자리를 넓히려 노력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외교를 실천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 ◆ 진정한 사랑

우리는 살면서 한국어에 대한 매력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같은 삶, 각박한 삶, 경쟁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그저 순수하게 좋아한다는 것을 잊고 사는 일상.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보다 영어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배웠고, 그것은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언어가 아닌 단순히 제2외국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타국의 언어에 성공을 빼고 관심과 사랑을 넣어보니 공식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나온 답도 다르겠죠.

언어에 관심과 사랑을 대입해보니 문화에 대한 이해가 나왔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다시 대입해 보니 역사적 미움보다는 현재 이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한국어가 좋은 건 그저 한국 문화와 한국드라마가 좋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들이었습니다. 가장 고령 참가자는 70세였습니다. 65세 변호사 할아버지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신무라 노부히사 씨는 스피치를 시작하며 자신 이름이 한국말로는 ‘신촌’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문화를 술자리에서 배웠고, 일본친구보다 한국친구가 더 많을 정도로 한국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촬영팀을 도와주었는데요.



통역사 없이 일본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대상의 영예를 안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신촌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역사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고위 간부가 미운 걸까요? 그냥 남들이 미워하니 미운 걸까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

고 커져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덩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녹여 준 미움의 눈덩이. 이제는 제대로 그들을 마주해 그들의 진정한 한국 사랑을 왜곡 없이 볼 수 있을까요?

# 흑한을 우주로 날려버린 '시안'의 첫 공개방송 이야기



지난 7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한 YTN PLUS와 YTN 라디오의 콜라보레이션 '시사 안드로 메다'가 지난 7월 50회를 맞았다.

팟캐스트 전체 순위 3위를 기록한 명성(?)에 맞게 기획한 신년특집 첫 공개방송 과연 어땠을까?



홍상희 팀장

"우리 공개방송 해볼까? 팟캐스트 순위도 많이 올라갔고, 사람들 직접 만나면 좋잖아."



이은지 PD

"좋다 좋아, 이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박지훈 연출사

"하자, 재밌겠다."



이동형 팟가

"아유, 뭘 또 하자고 그래?"



서정호 팀장

"아, 선배 장난 없네요" (서팀장의 표현방식)

홍상희 팀장 | YTN PLUS 디지털뉴스팀

믿는 구석은 있었다. 이미 이동형 작가는 팟캐스트 이이제이에서 토크콘서트를 포함한 공개방송을 30여 차례 치러본 베테랑. 부산에서 연 이이제이 마지막 공개방송에는 3천 명 가까이 모였었다. 거기다 이동형, 박지훈씨가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팟캐스트 '수다맨들'과 콜라보 공개방송이라는 미끼(?)도 가미했다. 시안(시사 안드로메다) 멤버인 우리 셋과 수다맨 멤버인 최옥, 남태우 배우가 진행자로 나서고 팟캐스트 흥행 보증수표인 김용민 PD와 정청래 전 의원이 게스트로 출연하기로 했다. 입담 좋은 출연진 말고도 믿는 구석은 또 있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라디오와 PLUS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 시사 안드로메다는 론칭 두달만에 10위권에 진입했고, 5개월이 지난 12월 초에는 전체 순위 3위를 기록했다. 안드로이드 전용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에서 전체 팟캐스

트 11,450여개 중 3위위로 1,2위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은 데일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주일 2번만 방송하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순위로 오른 것이다. 공개방송 정도는 해도 호응이 있을 거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이 또 용솨음쳤다. 그리하여 탄생한 1월 4일 공개방송 이름은 '수다, 맨드로메다'. 수다맨+시사 안드로메다를 줄여 만들었다.

기쁜 마음을 안고 공개방송 준비에 착수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현실은 이상과 큰 괴리가 있는 법. 가장 현실적인 비용 문제에 먼저 '쿵'하고 부딪혔다. 대선 안드로메다도 시사 안드로메다도 연간 기획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배정해 쓸 수 있는 공개방송 예산이 없었다. 머릿속에 꿈꿨던 월드컵경기장 규모(?)의 공개방송은 미래의 프로젝트로 미루고, 이번에는 1층 YTN 공개홀에서 조촐하게 열기로 했다. 돈

이 들지 않는 공개방송을 기획하려다 보니 '대선 안드로메다' 때와 마찬가지로 YTN 내부부서의 도움이 절실했다. 먼저 기술국에 SOS신호를 보냈다. 기술국 선배들은 이번에도 조명과 현장 진행을 흔쾌히 도와주시기로 했다. 음향은 라디오 방송 음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외부 PA(Public Address)를 섭외해야 했는데 이것 또한 음악실 장식문 선배가 직접 발로 뛰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계약 완료. 무대는 YTN 사이언스가 폐기 처분한다는 무대 장치를 물려받아 직접 나르고 조립해 설치했고, 의자와 테이블은 2층 카페 비안빈에서 빌렸다. 나는 종종 '시안'을 제작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지혜를 얻기위해 우리 회사 최고의 PD, 방병삼 선배를 찾아가곤 하는데, 이렇게 공개방송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숨을 푹 쉬며 "애쓰다."는 한 마디로 응원과 위로와 뭉치 알 것 같은 감정을 전해주셨다.

입장권은 무료였지만 이참에 YTN PLUS의 성과도 내보자는 생각에 공개방송 광고에는 스마트폰에 YTN 앱을 다운받고 배너를 눌러 신청하라고 내보냈다. 1월 4일, 공개방송 날짜가 다가왔다. 관객들에게 앱을 다운받는 귀찮은 절차를 요구하면 안된다는 다른 진행자들의 경고에도, 그래도 팟캐스타들이 출연하는데 YTN 공개홀을 채우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냐며 큰소리를 쳤는데, 당일 오전까지 무료 입장권은 SOLD OUT되지 않았다. 초조해졌다. "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찌지?"

공개방송이라는 것이 늘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5시 리허설, 6시 반 관객입장, 7시 시작인데, 6시가 다 되어가도록 이동형 작가 외에 진행자나 게스트 아무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어휴, 이 인간들을 믿은 내가 바보지. 어휴 어휴." 6시가 넘어서야 어슬렁어슬렁 도착한 출연자들은 뭐 급한 일 없

다는 듯 서로 담소를 나누는 여유마저 선보였다.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

무대의 불이 켜지자 나는 먼저 관객석을 바라보았다. 빈 의자는 없었다. 조금전까지만 해도 매우 불성실해 보였던 팟캐스트계의 베테랑들은 마치 탁구를 치듯 이야기 공을 통통 주고받았고, 1,2부에 걸친 2시간 반의 공개방송은 관객들의 웃음소리와 박수로 가득찬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출연자들도 늦은 뒤풀이 자리로 향해 텅 빈 무대를 바라보니 아쉬움이 먼저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다. "내용이 너무 없었어. 출연자 개인기에 너무 의존했어. 전달하고자 하는 한 가지 코드가 필요했어. 너무 내가 준비를 못했어." 어느새 서정호 모바일 프로젝트 팀장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선배 안 가세요? 다들 기다리는데..." 그제서야 나는 동료들이 생각났다. 라디오 이은지PD와 홍기희 작가는 전체 구성은 물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객 선물 협찬까지 준비했다. 서정호 팀장은 직접 PLUS직원들과 무대를 옮겨 장식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사내 부서들과의 실무 조율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총괄 PD처럼 준비했다. 직접 무대를 설치하고, 영상 촬영과 공개방송 안내 페이지 제작은 물론, 입장권 신청을 받고, 문자를 보내고 관객을 안내하는 역할은 YTN PLUS 직원들이 나서주었다.

'시안' 공개방송은 그렇게 모두의 힘이 보태져 완성됐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작은 웃음과 감동의 무대로 남았다. 그리고 우리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재일동포 1세의 기록>에 관한 기록

**김이향 PD** | 글로벌센터 콘텐츠제작팀  
재일동포 3세,  
일본 와세다 대학 및 서울대 대학원 인류학 석사과정 졸업

식민지배, 4.3사건, 그리고 분단.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동포 1세대. 해방 후에도 각종 차별과 법적 제약에 맞서며 일본에서 치열한 삶을 꾸려왔다. 지금은 대부분 고령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있다.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일동포 1세들의 육성을 기록하고 싶다." 이번 기획은 재일동포 1세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기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역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통과해온 그들 삶의 진실을 듣고 싶었다.

재일동포 1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나 또한 재일동포 3세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23세 때까지 일본에서만 살았다.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던 나에게 그동안 1세란 웬지 고국 중심적이고 민족 문화를 중시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난해 11월 말, 나는 앞으로 만날 일곱 명의 1세들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기대감과 불안감을 품고 일본, 나의 고향으로 떠났다.

첫 번째 취재를 하루 앞두고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던 1세 할아버지의 딸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취재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1942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철광공장을 경영하는 94세 할아버지다.



김이향 PD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순하 씨 (96세)

아버지는 한국에서 취재진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고 미안하다"고 딸이 말했다. 그

말은 거꾸로 그동안 한국사회가 재일동포들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 대해 더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취재 과정도 쉽지않은 않았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난 김순하 씨(96세)는 한국인 스태프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옛 제주도 사투리를 구사했다. 같은 한국인이라고 통역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2세 아들이 옆에서 해석해준 덕분에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남은 취재 일정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막막해진 순간이었다.

<재일동포 1세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1세에 대해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1세들을 한 명 한 명 만날수록 도대체 '1세'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재일동포 1세들이 식민지 시절에 억압을 받으면서 살았고, 해방을 기꺼이 맞이했고,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향에 가고 싶다는 우리의 질문에 김순하 씨는 시원하게 답했다. "친척 만나러 가는 건 좋지만, 나는 절대로 살지 못해."



자신의 시를 낭독해주신 김시중 씨 (89세)



김시중 씨 (89세)가 일본어로 시를 써온 이유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김시중 씨가 평생 일본어로 시를 쓴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내용이 궁금하면 방송을 보시라).

비록 본인의 의지로 조국을 떠난 1세이더라도, 이들은 태어난 땅보다 삶의 터전에 더 큰 애정을 가질 수 있다. 고향을 그리워 하지만 일본 역시 고향인 이중성. 그렇게 여전히 내적 갈등을 품고 있는 1세들은 오늘날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재일동포 후손들의 모습과도 겹쳐다.

2018년 1월, 서울로 돌아와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사회를 마치고 수정하는 와중에 도쿄에서 만난 양성중 씨(향년 79세)의 부고를 들었다. 제주도 출신인 양성중 씨는 일본에서 재일동포들과 <탐라연구회>를 발족시켜 한국과 일본 학계의 제주도 연구를 이끌어왔다. 인터뷰 때만 해도 양성중 씨는 향



고토 우투로에 사는 유일한 1세이신 강경남 씨 (93세)

후의 연구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설명해줬다. 그런데 제주도 성묘를 불과 일주일 앞둔 가운데 갑작스럽게 타계했다.

재일동포 1세들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 글도 제대로 못 쓰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오로지 일만 했던 1세들의 경우, 일본 사회에서 주변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한 재일동포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혹은 재일동포에게 반일감정의 화살을 돌리는 한국에 대해서도 침묵해야만 했다. 한참 늦었지만, 제작진은 이제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태어난 고향과 삶의 고향, 그리고 죽음의 고향 사이에서 다양하고도 억척스러운 삶을 일궈온 1세 개개인의 이야기. 그건 단순한 휴먼 드라마가 아니다. 곧 우리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이다.



도쿄 신주쿠 문화센터 '아리랑'에서 일하신 양성중 씨 (향년 79세)

### · 신년연속기획 <재일동포 1세의 기록>

· 방송 : 더 큰 코리아 \_ 토 (본방) 19:30 ~ 19:51 / 일 (재방) 02:33 ~ 02:53  
1.6, 7 강경남 / 1.13, 14 이병문 / 1.20, 21 양성중 / 1.27, 28 신용상  
2.3, 4 김순하 / 2.10, 11 김시중 편  
2월 17, 18일 (30분 특집)

· 연출 : 최광희 / · 작가 : 김이향 / · 촬영 : 김은옥, 이현수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민단 단장을 맡으신 신용상 씨 (93세)



오사카에서 공장을 경영하신 이병문 씨(83세)

# 2017년 4분기 자랑스러운 YTN인 상

**특종상** 은상 \_ <어금니 아빠> 이영학 관련 단독 연속 보도



조은지 \_ 사회부



양시창 \_ 사회부



최기성 \_ 사회부



신지원 \_ 사회부

동상 \_ 사각지대 <또래폭력> 4개월 추적 연속 보도



이승배 \_ 광주지국



나현호 \_ 광주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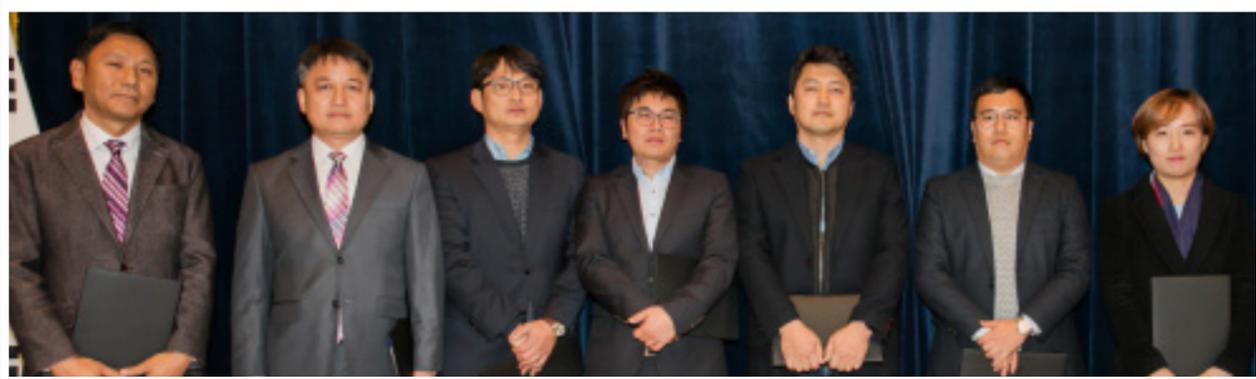


김경록 \_ 광주지국



문한수 \_ 광주지국

**콘텐츠상** • **금상** \_ 정유신 \_ 글로벌기획팀 / 이현수 \_ 콘텐츠제작팀 <YTN특별기획 고려인 3부작> 제작  
 • 은상 \_ 박종혁 \_ 경남취재본부 / 강현석 \_ 부산지국 / 오태인, 박재상 \_ 진주지국 / 성도현 \_ 영상취재2부 <국립공원 50주년, 지리산 50주년 중주> 기획획  
 • 동상 \_ 최계영 / 김학묵 \_ 영상취재2부 <산림강국 코리아> 프로그램으로 YTN 이미지 제고와 수익 창출



**공로상** • **금상** \_ 윤성희 \_ 마케팅3팀 / 김도영 \_ 마케팅2팀 <신규 광고주 개척을 통한 회사 매출 기여> 공로  
 • 은상 \_ 이강진 \_ 정치부 <신고리 공론화 토론회 성사 및 마케팅> 기여  
 • 은상 \_ 이봉하 \_ 재무회계팀 <2011년~2016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의 건  
 • 동상 \_ 이선미 \_ 재무회계팀 <미수채권 회수 및 관리> 강화



**공로상** • 이은지 \_ 라디오 뉴스제작팀 <시사 안드로메다> 및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제작 방송  
 • 김성태 \_ DMB <부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공로  
 • 곽윤근 \_ DMB 편성제작팀 <BIS 도입에 따른 CG 자동화 등> 공로



# 2017년 연말대상

**특종상** 사회부 사건팀 <기업 갑질 문화 고발> 단독 및 연속 보도

**공로상** 허용석 / 이충현 \_ 기획사업팀 <복지몰 거래액> 2배 신장



**사외유공자** 정지영 부장 / 한지원 과장 \_ 재외동포재단 <YTN셋톱박스 보급과 콘텐츠 제작> 기여



국동대절 한지에 목판 62 x 151.5 cm 2008

# '김억의 판화' '김억의 풍경'

— 김억 목판화가

판화는 간접성, 복수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때로 직접적이면서도 강렬하다. 유화 혹은 수채화에 비해 다소 번거로운 제작방식을 갖고 있으나 판화는 판화이기에 가능한 판화만의 맛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판화가들은 판종에 따른 저마다의 독특한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나에 따라 제작방법도 달라진다. 메시지 전달력과 느낌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홍경한 | 미술평론가, 강원국제비엔날레 초대 예술총감독

예를 들면 연의 메조틴트 역시 열외로 둘 수 없다.

어 참여미술의 선봉에 섰던 케테 콜비츠의 목판화와 민중의식이 점철된 오윤의 목판화는 투박하지만 그 거친 질감으로 인해 시대성을

작가 김억의 목판화 또한 판종과 주제 간 호흡이 썩 조화롭다. 목판화 특유의 톱툭함과 세밀함이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토의 산하를 부감법으로 한지에 담아내는 그의 풍경 목판화의 경우 특유의 정서가 물씬하다는 점이다.

그 정서에는 한 민족이나 개인이 조상대대 전통적으로 이어온 생활 습속(習俗)에 따라 함께 했던 문화가 녹아 있고, 현세에서의 솔직하고 소박한 심정이 깃들여 있다. 특히 대추리의 전경을 예민하게 묘사한 작품에서처럼 그의 판화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역할, 상기해야 할 현재와 미래의 역사, 기억해야 할 오늘 의 삶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자연과 역사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꼬트머리에 자리한 나와 우리의 '삶'은 김억의 판화가 살가워지는 명백한 이유다. 의미의 부재 속에 껍데기만 화려한 작품들과 작업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미술계에서 유구한 세월동안을 자기 정체성과 예술적 좌표를 그리기위해 수없이 던진 질문 또한 그의 그림에 가치를 더하는 원인이다. 이는 그의

반영한 주제의식이 돋보일 수 있었다. 같은 판화라도 실크스크린과 같은 공판화였다면 것처럼 강렬하고 호소력 깊은 의미전달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윌리엄터너의 풍경 동판화는 부드럽고 포근하며, 명석한 퍼스펙티브로 독일 르네상스를 이끈 알프레드 뒤러의 인그레이빙은 매우 섬세하다. 섬세함으로 따지자면 소담한 자연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온 황규백이나 도시야경으로 잘 알려진 김승



김억 \_ 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동 대학원 동양학과 석사

- 개인전 14회의 한국화 개인전과 2016 김억의 국토-‘남도풍색’전(나무화랑/서울) 등 목판화 개인전 10여 회
- 그룹전 2008 오늘로 걸어나온 검제전(고양문화재단 아람미술관, 고양) / 한중 판화교류전(천진 당고 박물관, 중국 천진) / 제주 세계자연유산 테마 특별기획-자연의 신화 제주전(제주 현대미술관, 제주) / 2010 노란선을 넘어서 (경향 갤러리, 서울) / 한국현대판화 지천명(知天命)-성찰(省察) (진천근립 생거 판화미술관/충북진천) / 산수너머 (Beyond landscape painting) (경기도 미술관, 안산) / 2012-2015 울산 국제 목판화 페스티벌 (울산 문화회관, 울산) / 2012 제주 도립미술관 개관 3주년기념 ‘한라산과 일출봉’전(제주 도립미술관, 제주) / 2013 제주현대미술관 신년 특집기획 ‘새벽-국토-자연’ (제주 현대미술관, 제주) / 2016 빈해신구 중한판화 교류전 (天津市濱海新區 中韓版畫 交流展) (태체도서관 당안관, 천진 중국 (泰達圖書館 檔安館) / 2015 大江-觀瀾 국제 판화 교류전 (호북 미술관, 우한 중국) / 2015 경기도 미술관 특별기획 ‘경기 팔경과 구곡’ (경기도 미술관, 안산) 등 다수
- 주요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부산시립미술관, 포스코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제주 현대미술관, 청강문화산업대학, 수원시청, 평택시청, 통영시청, 안성시립도서관 등

그림을 단지 '풍경'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풍경'과 관련해 전시기획자 송수정은 '길에서 길을 새기다-김억 국토 전에 부처'라는 과거 전시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억의 풍경은 땅이자 국토이지만 동시에 지나간 시간을 품고 있는 기억의 매개이자, 우리 삶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이 세상이다. [...중략...] 풍경은 고정되어 있는 듯하나 끊임없이 움직이고, 단단하고 커다란 기운인 듯하나 주변과의 관계 맺기 속에 있는 유기체다. 풍경은 그곳에 깃들여 있는 지난 시간의 추억, 그곳을 바라보는 이의 상념과 삶의 무게가 버무러질 때에만 완성된다. 풍경은 그래서 상처이자, 치유이고, 현재이자 기억이다." 송수정의 말마따나 그의 풍경은 "개인의 것이었을 때는 삶의 서사가 되고, 그것이 집단화 되었을 때는 그 장소가 품고 있는 역사가 된다. 김억의 풍경은 저 세상과 이 세상을 잇고, 개인의 서사와 집단의 역사를 이어 성찰하고 공명하는 힘을 지닌다." 그 공명하는 풍경이 외형적인 흥내라면 흥미롭지 않다. 외피를 재현하는 풍경이 아닌, 정신적인 이해가 앞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령기에 김억은 늘 현장에 서 있다.

《백두산 비룡폭포》(2008), 《일어서는 땅 - 운주사》(2005), 《문경진남교반》(2009), 《낙동강 - 상주 경천대》(2009), 《화성 화홍문》(2006), 《담양 광주호》(1998), 《안동 하회마을》(2005), 《화양 구곡 - 암서재》(2005), 《고창 선운사》(2005), 《동방의 아침에 해를 맞는 독도》(2005), 《무흘구곡》(2014) 연작 등은 모두 작가가 발로 쓴 기록들이다. 온몸으로 받아 쓴 기록이면서 나이테를 두르듯 국토와 자연이 쌓아온 시간, 그 흔적을 위에서 생을 여미는 사람들의 삶을 몸으로 되새기고 그림으로 대화하며, 마음으로 끌어안은 것들이다. 필자의 시선에도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나눠진 현실에서 건져 올린 직시의 시각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발아(發芽)한 자체적인 발언들의 집합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한강-합수머리팔당호 한지에 목판 100 x 200cm 2012



차기 동계 올림픽 주인공은 나야 나!

# 스노우 보더 차현주 앵커



수줍은 미소,  
단아한 걸음걸이의 그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파워풀한  
스노보드 선수로 빙의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  
대표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이브닝 8 뉴스》 안방다림이자  
앵커실 반전 매력의 소유자,

차현주 앵커를 잠시 들여다보자.

**Q 스노보드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대학교 새내기 시절,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모두 스노 보드를 좋아했어요. 겨울방학 때는 거의 스키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때 스파르타식으로 배웠어요. 엄청 넘어지고 구르고 다시 털고 일어나고... 이 과정을 대학 생활 4년 내내 겨울철마다 하니 어느새 중·상급 슬로프에서도 즐기면서 내려올 정도가 되더라고요.

**Q 스노보드랑 찰떡궁합, 이유는?**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 '일단 부딪혀보자'하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보드도 '일단 한 번 타고 내려와 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보드를 타다 보면 '이대로 넘어져서 데굴데굴 구르게 되면 어찌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말도 못하게 후련해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죠.

**Q 차현주 앵커는 단아하다... 나만의 반전매력은?**

낮을 가리는 데다 뉴스 할 때는 아무래도 더 신중해져서 단아하다고 많이 봐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행동에 구멍도 좀 있고 털털한 편이라 첫인상과 많이 다르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장난기도, 웃음도 많고요. 아 참! 주위 사람들 성대모사도 잘 합니다.^^

**Q 어릴 적부터 뉴스 앵커를 꿈꿨는지?**

어릴 땐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범대에 진학했고, 대학 4년 내내 '난 선생님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알았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걸요. 물론 당시 학생들과 함께했던 한 달 동안 더없이 행복했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로를 틀어 정보도, 조언자도 없이 무작정 방송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Q 기상 캐스터에서 앵커로 전향, 힘든 점 vs. 좋은 점?**

기상팀에서 경력을 쌓은 후에 뉴스를 진행하게 돼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중계와 현장 리포팅 등 지금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 사이 30대가 되고, 결혼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도 넓어진 것 같고요. 다만 더 신뢰감 있는 전달을 위해 발성을 바꾸는 과정은 힘들었어요. 한동안 소리가 잘 나지 않아서 신문을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 읽으며 연습했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 소리가 저음으로 내려가고 한결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Q 뉴스 앵커로서 보람된 순간은?**

가장 보람 있는 건,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공감과 격려예요. 제가 작성하고 뉴스에서 직접 방송한 '뉴스체크' 앵커 리포트 영상이 페이스북에서 공감 수백 개를 넘어 천 개를 넘고, 댓글이 수십, 수백 개 달린 적이 꽤 있어요. 함께 분노해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는 반응을 볼 때 정말 보람 있고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Q 이브닝 8 뉴스' 진행자가 꼽는 시청 포인트는?**

《이브닝 8 뉴스》는 시간 대비, 투입 인원 대비 가장 생산적인 뉴스예요. PD인 안윤학 선배는 진행뿐만 아니라 매일 정지권 뒀 이야기를 엮어 '팔팔영상'을 만들어요. 자막에 녹취까지 자르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휴가 가서까지 콘티를 보내올 땐 허를 내들렸어요. 정병진 앵커는 온갖 외국 사이트를 뒤져서 재미있는 영상을 찾고, 편집하고, 기사를 써서 '체크토픽' 코너를 완성합니다. 저도 매일 저희 리포트를 다루어지지 않은 아이템을 발제해 '뉴스체크' 앵커 리포트를 작성하고요. 이런 노력에 시청률도 상승세랍니다. 이쯤 되면 소수 '정예' 멤버 맞나요?^^

**Q 앞으로 어떤 뉴스 앵커가 되고 싶은지?**

기분을 지키며 묵묵히 정도를 걷는 앵커가 되고 싶어요.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 비해 TV 뉴스의 절대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보는 분들도 평범한 앵커는 재미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분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시청자들이 '저 앵커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일을 하네, 믿음직하다' 하는 느낌을 주는 편안함 앵커가 되고 싶습니다.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 감미롭고 낭만적인 정서가 담긴 명곡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

유석현 앵커 | 국민신문고

그날 저녁 메뉴는 사골만두국이었다. “유기자, 이거 아주 귀한거야. 많이 먹으라우” 1992년 남북총리회담 당시 우리 측이 롯데 호텔 그랜드볼룸에 마련한 만찬장. 식사가 나오자 옆자리의 조선중앙TV 카메라기자가 한 말이였다. 사골만두국을 그다지 귀한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피식 웃으며 답했다. “예, 많이 드세요” 다른 북측 기자들처럼 그도 나이가 지긋했는데 자녀에 관한 질문에 “딸아이는 유치원 보모고 아들은 공대에 다닌다”며 “남자는 그저 기술이 최고”라며 자랑스러워했다.

북한팀장으로 일하면서 탈북한 북한 고위층 인사를 만났을 때 남쪽에 내려와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엉뚱하게도 그는 “출퇴근길 서울 시내 도로가 꽉 막혀 자동차들이 ‘부릉부릉’하면서 정지해 있을 때”라고 말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값비싼 기름을 써가며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이 감명적이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크게 뒤쳐져있는 북한의 클래식음악 수준을 어떻게? “북한에서는 최소한 연주할 때 한 악장 끝났다고 박수를 치진 않는다. 북한의 음악 수준은 매우 높다. 음악인의 솜자를 비교하면 적을지 몰라도 정예 멤버의 실력은 수준급이다. 서울대 음대보다 평양음대의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 판피아니스트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곡을 연주했다가 문제가 돼 보위부로 끌려가 고문까지 받은 뒤 2002년 한국으로 탈출한 피아니스트 김철웅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북한 최상위계층 출신으로 평양음악대학을 다녔고 러시아 차이콥스키 국립 음악원에 유학까지 한 그는 “북에서는 음대에서 클래식에 한해 음악을 배우는 것이 허락되며, 라흐마니노프와

같은 19세기 말 이후 음악가의 곡은 모두 금지곡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라흐마니노프의 작품들이 북에서 금지곡이 된 것은 작품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귀족출신인 그가 러시아의 공산 정권이 들어선 뒤 미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의 피아노협주곡 2번 c 단조

1901년 28세 때 작곡해 같은 해 10월, 작곡가 자신의 연주로 초연됐다.

‘서정성’이라는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작품으로 그가 작곡한 네 곡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다.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노를 잘 치기로도



유명했는데 모스크바 음악원 재학 당시 한번 들어보고 좋아했던 음악은 그것이 피아노곡이던 관현악곡이던 간에 마치 오랫동안 연습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연주했다고 한다.

작곡가 자신이 피아노의 명인이었던 만큼, 이 곡을 통해 피아노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나라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뒤이어 현악기가 러시아 뱀새가 물씬 나는 멋진 주제 선율을 들려준다.

2. 제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작곡가의 서정성이 그대로 드러난 아름다운 악장이다. 감미롭고 낭만적이라는 이 협주곡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4개의 피아노 협주곡이 서로 비슷하고 그 곡이 그 곡 같다고 혹평하는 일부 평론가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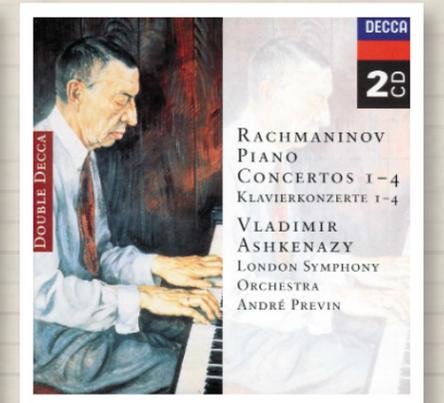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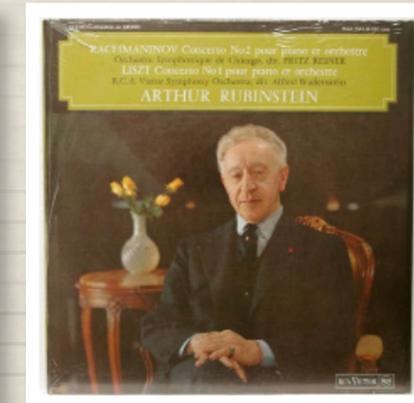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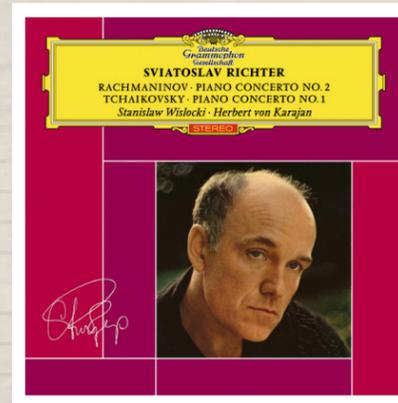
### 1. 제1악장 (모데라토)

마치 거대한 종을 치는 듯한 장중한 피아노 화음으로 시작되는데 그래서인지 이 첫 부분은 ‘크렘린 궁전의 종’이라고 불린다. 처음 들었을 때 ‘피아노 협주곡이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

2악장의 주제 선율은 여러 영화나 드라마, CF의 배경음악으로 채택돼 귀에 익숙하다. 미국 팝 싱어 에릭 카먼(Eric Carmen)이 1975년 데뷔 앨범에 발표해 히트한 ‘All by Myself’의 간주부문에도 사용돼 팝과 클래식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는 찬사를 받았다.

### 3. 제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

춤 풍의 경쾌한 리듬으로 시작돼 피아노의 현란한 연주로 이어진다.



### [추천 음반]

- 리히테르(피아노), 비슬로츠키 지휘, 바르샤바 국립필하모니 관현악단(그라모폰) 음반은 러시아의 짙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대범한 연주라는 평가를 받는다. 선이 굵으면서도 깊은 내면성을 보여준다.
- 루빈스타인(피아노), 라이너 지휘, 시카고 교향악단(RCA) 음반은 완벽한 기교를 갖춘 비르투오소로서의 기량을 아낌없이 과시한다.
- 아시케나지(피아노), 콘드라신 지휘, 모스크바 필하모니 관현악단(데카) 음반은 맑고 신선하면서 로맨틱한 연주를 들려준다. 아시케나지가 프레빈 지휘, 런던심포니와 녹음한 음반도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는데 네곡의 피아노 협주곡이 2장의 CD에 모두 담겨있다. 두 음반 모두 앞서 소개한 음반보다 녹음이 뛰어나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



## 영화 <1987>의 바통은 YTN에서 출발했다

최광희 | 영화평론가

“영화 <1987>은 우연한 만남이 시작점이다. 전업 작가를 시작한 2015년 봄, YTN 송태엽 선배랑 막걸리 마시는데, 송선배가 툭 던진 한마디. “왜 6월 항쟁은 영화로 안 만드는 거야?”. 토르의 망치가 뒤통수를 갈기는 거 같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써야 했다. 쓰고 싶어 미치겠더라. 며칠 뒤 같이 시극 시나리오를 개발 중이던 우정필름 대표를 만났고, 딱 거 쓰고 싶으니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6월 항쟁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미친 양반이 ‘어찌 약속을 어기고 그럴 수 있냐고 한 게 아니라, ‘나랑 합시다!’ 하더라. 그렇게 휘뚜루마뚜루 시작됐다. <1987> 엔딩 크레딧중 도움 주신 분들 항목에 ‘YTN 송태엽 기자’가 있다. 그날, 송선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막걸리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우정필름 대표가 화를 냈더라면, 영화 <1987>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운명이란 거, 이렇게 무섭다.” \_ 영화 <1987>의 시나리오를 쓴 김경찬 작가의 트위터 중.



다. 송 기자는 김 작가가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실화를 다룬 영화 ‘카트’의 시나리오를 쓴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자리에서 그에게 영화 소재 하나를 제안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다. 김경찬 작가의 눈이 빛났다. 슬쩍 쳐다보니 김 작가의 눈에서 “이건 꼭 해야겠다”는 의

지가 엿보였다. 송태엽 기자는 구체적인 소스들을 취재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줄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도움을 자청했다. 그날 이후, 김 작가는 ‘1987’의 시나리오 작업에 매진했다. 몇 달 뒤에 그가 쓴 시나리오 초고를 읽었다. 길이 남을 한국영화가 탄생하겠다는 짐작을 하고도 남을만큼 가슴 벅찬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까지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통치가 서슬 퍼렇게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우정필름이 제작을 맡기로 하고 장준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제작 여부는 불투명했다. 이후 배우 김윤석과 하정우, 유해진에 강동원까지 캐스팅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시 정권 하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이 영화에 투자를 하겠다고 선뜻 나서서 배급사는 없었다. 지금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블랙리스트가 횡행하던 시절이었다.

제작사 측은 2016년 <곡성>의 흥행 성공에 고무된 할리우드 배급사 20세기 폭스에 투자 의향을 타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폭스는 6월 항쟁의 역사적 맥락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김경찬 작가가 직접 6월 항쟁 당시의 영상 자료를 수집해 할리우드 투자자들에게 보낼 영상 가이드를 편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폭스는 투자 여부에 대한 확약을 해주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다. 촛불 국면이 시작되었다. 엄동설한을 뚫고 수만, 수십만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정국이 급변하자 국내 투자 배급사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 서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되었다. 자본에는 영혼이 없다. 시대 정신도 없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략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창작자들은 영혼 없는 자본을 끌어와 영혼을 싣는다. 그렇게 해서 ‘1987’은 촛불 국면에서야 극적으로 제작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영화의 투자자는, 엄밀히 말해 촛불 혁명을 이끈 시민들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영화 ‘1987’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주연배우 김윤석은 제작보고회에서 영화 <1987>을 일컬어 “쇼트트랙 계주 같은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 표현은 매우 적절하다. 육상이나 수영의 계주와 달리, 쇼트트랙 계주는 주자가 다음주자의 엉덩이를 밀어준다. 그리고 라인 안쪽으로 함께 돈다. 바통을 건네주면 끝이 아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선수와 보조를 맞추며 함께 달려주는 것이다. 마치 그 쇼트트랙 계주처럼, 이 영화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보통 사람들이 바통을 이어가며 진실이 세상 밖으로 알려질 수 있게끔 용기를 낸 과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바통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넘겨주고도 같이 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를 숨기려고 화장을 강행하려던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막나가는 질주를 최초로 제지한 이는 법과 상식을 지닌 검사였다. 그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은 두 번째 주자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발표에 의문을 품은 기자였다. 거기서 그쳤다면 1987년 시청앞 광장을 찌렁찌렁 울렸던 100만 시민의 함성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호헌 선언을 폐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던, 군부 독재의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던 6.29 선언도 이끌어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교도관이

세 번째 바통을 이어 받았기 때문이며, 거리로 나선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최루탄과 백골단의 폭력적 진압에 굴하지 않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바통을 이어 받은 건 민주주의의 주인들, 우리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장준환 감독이 그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다”고 말한 건 매우 타당하다. 실제로 영화 <1987>은 독재 정권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박 치안감(김윤석)에 맞서 바통을 이어가며 진실을 밝혀려는 다수의 주인공들이 저항하는 ‘1대 다’의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다.

송태엽 기자는 2015년 봄 김경찬 작가에게 바통을 넘겼고, 김 작가는 그해 겨울 장준환 감독에게 바통을 넘겼으며, 장 감독은 이듬해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박희순, 이희준, 김태리, 강동원, 설경구에게 바통을 넘겼다. 그 배우들은 역할의 비중을 떠나 영화 안에서 각자의 바통을 들고 우직하게 달린다. 그리고 스크린 위에 재연된 1987년의 바통은 촛불혁명 1주년, 6월항쟁 30주년이 된 2017년 겨울, 이 나라의 진짜 주인들에게 헌사로 넘겨졌다. 영화 <1987>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시대 정신, 우리의 정의감, 우리의 승리를 위해 영화 예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헌사다.





한국 만화의 레전드,  
**영원한 까지**  
만화가 '이현세'

인터뷰 | 김여진 앵커

속스욱 속스욱...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작은 작업실,  
순식간에 하얀 종이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

그가 세상에 내놓은 불멸의 캐릭터 '까지',  
세월이 흘렀어도 강인한 눈빛은 여전하다.

까지를 그리다 어느새까지와 닮아버린  
만화가 이현세는 요즘도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

팝아트처럼 내 만화를 유화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이제 곧 유화 필사에도 나설 참이다.

거장의 자리에서도  
도전을 거부하지 않는 영원한까지 '이현세'를 만나본다.



**250** 울진군 매화리에 조성된 '이현세 벽화거리' 총 길이(m)

벽화 거리가 조성된 울진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지요. 저는 포항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면에서는 울진 사람이거든요. 조부모님 산소도 거기 있고 부모님 손잡고 성묘를 다녔으니까요. 또 '전의 이'씨 집성촌이구요. 아직도 둘째 누님이 울진에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조성된 '이현세 벽화거리'를 보고 재미있어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울진에서 처음 의뢰 전화가 왔을 때 3번 정도는 절대 불가하다고 했죠. 보통 작가의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건 두 번 다시 다른 곳엔 만들ertz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울진 이장님의 열정이 어찌나 넘치시던지 군수님과 같이 올라오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곳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옛날 만화방에서 이현세 만화를 볼 때를 추억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이미지를 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시작하게 됐지요. 광고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지정하는 그림이 그 벽에 똑같은 느낌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조건을 내걸었지요. 많은 경우 원래 이미지가 약간씩 망가지기 마련이니까요.

「잘 노는 사람이 문화를 만든다.」「인생이란 나를 믿고 가는 것이다」 등 제가 좋아하는 말들로 벽화 문구를 채웠어요.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를 즐기라는 게 작가 이현세의 기본적인 메시지겠지요. 시간이 없으니 현재를 즐기라는 일종의 나그네 철학이라고나 할까요?

**7** 처음으로 만화책을 접한 나이

사라호 태풍 이후 7살 때 포항에서 경주로 이사했어요. 길거리 만화방을 지나다가 처음 만화를 만났지요. 당시 만화방들은 고무줄에 표지가 보이도록 걸어서 입구에 놓았거든요. 만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었어? 뭐 저렇게 자극적인 그림이 있을까 생각했지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만화방 문턱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여름에 개구리를 두 강통 잡으면 만화책 2권 정도 볼 수 있었죠. (\*60년대 상황) 당시 양계장 닭 모이로 개구리를 많이 주던 때였거든요. 주인은 우리가 준 개구리를 모아서 양계장을 찾아가 돈으로 바꾸는 거죠. 만화방에서 매일 사는 게 꿈이었는데 친할머니가 너무 무서워 그러지는 못했어요. 제가 장손이니 공무원 돼야 한다며 어찌나 공부, 공부하셨는지요. 만화방에 가 있으면 동생이 일러바치는 바람에 할머니께 잡히기 일쑤였죠.

결국 스무 살 때 야반도주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씌지돈 주셨던 걸 모아가다 올라왔지요. 당시에는 문학생이라고 편지로 그림 그린 걸 선생님에게 보내 재능 있다는 평을 받으면 차비만 들고 그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문학생으로 안 받아줬어요. 못 되게 생겼다고요. 하하하~ 결국 순정만화가 나하나 선생님 밑에 들어가 매일 반짝반짝하는 눈만 그렸지요. 근데 그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캐릭터 '까지'의 눈은 어찌 보면 개그 작가의 눈과, 순정 작가의 슬픈 눈과, 활극 작가의 호랑이 눈 3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걸까지를 통해 한 인물로 통일 시키는 거죠. 지금은 흔한 기법이지만 당시엔 모든 게 정형화된 상황 속에서 일종의 경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1982** 대표작 '공포의 외인구단' 탄생연도

《공포의 외인구단》속까지는 80년대 아이콘이라고 봐야 하죠. 다들 어려워 국가나 국민 모두가 허리끈 즐라매고 앞으로 진격을 외쳤을 때잖아요. 개인의 선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 가운데 '까지'라는 캐릭터는 부딪히면 자기가 깨지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위해 나아가는 폭탄 같은 캐릭터였죠. 당시 달랠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그 캐릭터를 보고 대리만족을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만화나 드라마에서도 도전 정신, 지

옥 훈련 등을 진지하게 다루면 절대 통하질 않아요. 피눈물을 흘리며 다루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뭔가 부딪혀서 맘을 흘려 극복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까치를 이길 수 없어요. 작가로서 아주 행복한 비명이지요. 다들 까치 스타일 말고 다른 건 그럴 수 없냐고 했고, 저 나름대로 시도도 해 봤지만 어떻게 그리든 간에 독자는 까치만 원하더라고요. 제가 강의하는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현세가 직접 그린 것과 제자들이 그린 것을 구분해보라고요. 그랬더니 완전히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며느리 밥풀꽃에 대한 보고서>, <카론의 새벽> 등 제가 직접 그린 건 거의 다 제자가 그렸다고 하고요. <지옥의 링> 등 정형화된 걸 충실히 지켜 그린 작품을 이현세의 정수로 꼽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까치'라는 캐릭터는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이기긴 틀렸구나. 까치를 서민적인 인물로 다뤘다가 작품을 끝내버리면 옥 한 바가지 먹을 거예요. 애가 뭔가 한번 뒤집을 줄 알았는데 안 뒤집으니까, 캐릭터가 너무 강해도 바꾸기 힘들더라고요.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죠.

#### 40 만화인생 40년 / 1978년 만화 '저강은 알고 있다'로 데뷔

40년 인생 아주 만족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시절 잘 놀았다는 기분이 들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내 재능을 음악 같은 걸로 바꿔준다면 모를까. 하하~ 자유로운 의지로 누구와 타협을 해보고 살아오지를 않았으니 다시 돌아간다 해도 아마 똑같이 살 거예요. 마라톤 풀코스 뛰고 나면 한 번 더 뭘 생각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저는 제 삶을 아주 만족합니다.

하지만 20대 때 성공하지 않고 제게도 오랜 무명 생활이 있었더라면 좀 더 주어진 기회와 재능에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생활인도 되고, 세상을 더 알았을 것 같고.



제가 성공해서 한창 활동하던 당시엔 만화 학원도 없고, 만화가들 문하생으로 들어가 기술을 배우거나 일본, 유럽 만화 등을 보고 독학하던 때였으니 만화계는 완전히 황무지였죠. 사회적 시선도 따가웠고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내가 가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최초, 혁명 등 모든 작가들이 듣고 싶어 하는 수식어는 다 듣고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겁이 없었죠. 돈이라는 것도 당연히 몰랐고요. 아주 많이 벌었지만 돈을 굴리는 요령을 부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집사람한테 꼼짝을 못하죠. 아내가 "당시 내 말을 10%만 들어어도 지금 편하게 살았제!"라고 말하면 그때 가만히 있어야 해요. 하하하~

#### 2015 웹툰 작가 '신인상' 수상 연도

예순이 넘어서야 처음 신인상을 받았어요. 영원히 못 받을 줄 알았죠. <공포의 외인구단> 등의 만화가 나올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일단 만화 분야 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상이란 건 제가 앞장서서 하나씩 만들었던 거니까 중진인 제가 신인상을 받는 건 불가능이었죠. 그런데 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게 웹툰 작가 신인상을 준다는 사실이 정말 참신했어요. 재미있으면서도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천국의 신화 6부>를 2015년부터 웹툰에 선보였던 이유는 웹툰 아니고는 내보일 창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신화>는 이미 10년 전에 5부 연재를 끝낸 작품인데요.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5부가 끝날 무렵 신문 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라 연재를 해오던 스포츠 신문도 사정이 어려웠어요. 동영상과 인터넷에 신문이 밀리는 상황이라 광고료가 줄어 결국 원고료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혼자 작업을 한다면 100만 원을 받고도 할 수 있었지만 당시 제가 만든 화풍으로 일주일 분량을 한꺼번에 그려야 하는 연재를 하려면 혼자서는 죽어도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팀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42살에 대해 역사물로 야심 차게 도전한 <천국의 신화>가 청소년 음란·폭력물 논란으로 재판에 들어가면서 최종 무죄 선고까지 꼬박 6년이 걸렸어요. 끝나고 나니 내 나이 50이 된 거예요.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어 버리고 막 웹진과 웹툰이 시작됐더라고요. 안 배우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했으니까요. 출판 시장은 점점 좁아지는데 웹툰만큼 누구나 쉽게 데뷔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웹툰을 배웠어요.

#### 4 현재 집필 중인 네 번째 학습 만화

요즘 한창 작업 중인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 학습 만화에요. <한국사 바로보기>, <세계사 넓게 보기>, <삼국지>까지 동서양 짝 맞춰서 작업하고 나니 서양 쪽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 로마신화까지 다루게 됐어요. <천국의 신화>와 관련한 재판을 다 끝나고 나니 만화가 이현세는 아는데 이현세 만화를 보는 독자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흘러 만화 시장에서 저는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독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둘러보니 제 독자층은 전부 아줌마, 아저씨 세대가 돼 있더라고요. 한창 아이들 공부 시키는 데 열중할 나이인 거죠. 만일 제가 역사 관련 학습 만화를 그린다면 이왕이면 자신이 좋아했던 만화가 이현세가 그린 한국사를 사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했던 거예요. 아주 전략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냈던 <한국사 바로보기>라는 책에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세계사도 할 수 있었고, 삼국지까지 할 수 있었죠. 요약하자면 제 자리를 다시 한 번 찾아보려고 학습 만화를 시작했던 겁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던 거죠.

#### 600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하루 작업 컷수

요즘은 하루에 한 8페이지 정도 작업을 해요. 옛날 출판 만화로 치면 약 40컷 정도의 분량이지요. 한창 작업할 당시에는 하루에 5, 600컷씩 그렸어요. 돈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가 그린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즐기니까 하기도 힘들지가 않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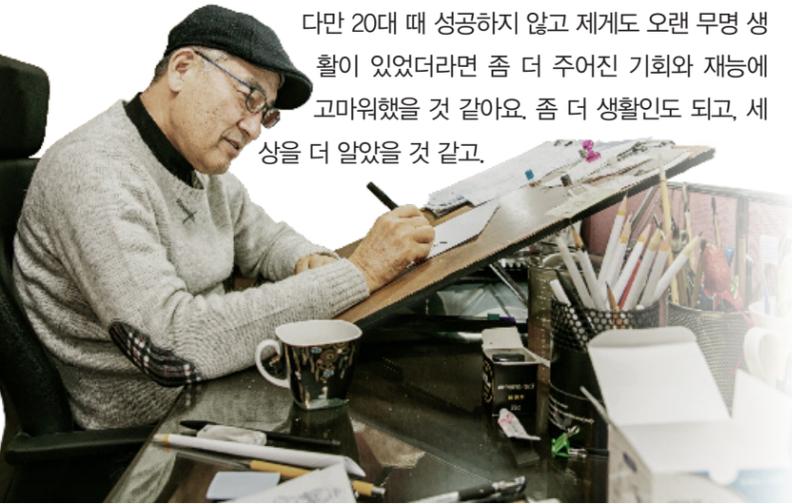
만화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작업에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먹고, 화장실 가는 것 등 모든 생리 작업이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작업 중에도 생리적인 시간에 맞춰 작

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전자 스타일이지요. 하던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배도 안 고프고 생리 작용이 전혀 안되거든요. 예전엔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작업하다 말고 배고프다고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작가라는 직업은 어차피 미친 짓이잖아요. 저는 집중하면 눈도 깜빡하지 않거든요. 만화도 워낙 섬세한 작업이라 시계방의 수리공처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을 깜빡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작업하다 눈을 들면 앞이 뿌옇게 안 보여요. 1시간에 5분 정도만 쉬면 8시간씩 작업해도 눈이 좀 괜찮으니 결국 한 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작업을 하기도 했죠. 아직도 작업을 할 때면 너무 집중을 해서 쉬지를 못해요.

#### 65 올해 나이

난 예순 다섯 살이 되면 책이나 읽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공자님 말씀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너무 일찍 작가로 성공하는 바람에 마흔부터 추락할 준비를 했어요. 시대가 바뀌면 작가의 스타일도 인기와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찌감치 노인이 될 준비를 했는데 나이 듦이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눈 깜박할 새 흘러가는 육체의 세월을 우리 정신이 도무지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철이 들지 않는 거죠. 항상 젊은 정신을 갖고 있으니 작가로서는 좋은데 같이 사는 동반자 입장에서는 대책 불가능인 거죠. 이제는 좀 철들만한 거 같은데 안 들잖아요. 하하~

지금까지는 성인 만화를 주로 그려 왔는데 앞으로는 동화작가가 한번 돼 보고 싶어요. 일종의 최면인데 하나는 앞으로 태어날 내 손자, 손녀를 위해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동화를, 또 하나는 나와 같이 늙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동화를 쓰고 싶어요.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 노인의 삶은 정말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노인들에게 꿈과 로망이 없는 건 아니죠. 욕망도 있구요. 내가 이 나이가 돼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의 입장에서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동화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 김억 목판화전

Invitational Exhibition



외교부 초청 홍콩기자단 방문 \_ 11. 14



청소년 발명기자단 방문 \_ 11.28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상호 협력 업무제휴 협약 \_ 10.26



제2회 강소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_ 12. 14



2017 마케팅혁신 CEO 대상 시상식 \_ 2018.1.10



2017 광고기획 혁신 CEO 대상 시상식 \_ 2018.1.17



2018. 1.1(월) ~ 2.28(수)

24시간 오픈 갤러리

●●YTN ARTSQUARE

